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16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440-331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440-2421 • 담당자 박은희 ☎440-24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코로나19 생치센터 동참... 지역기업 협조 속 안정적 대응

- 포스코그룹, 300명 입소 규모 글로벌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하기로 -
- 박 시장, 코로나19 대응 일정 전환...확진자 치료·확산방지 행정력 집중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치료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이 인천지역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원에 전격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포스코그룹이 7월 16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글로벌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 개선 등 작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입소 가능인원은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는 15일까지 3곳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409명이 입소해 있어 입소 가능인원(506명) 대비 80.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집단 감염 발생이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부터 120명 규모의 백세요양병원이 추가로 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포스코글로벌연수원까지 운영되면 인천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입소 가능인원도 620여 명에서 약 920여 명으로 늘어난다.

5곳 모두 운영에 들어가면 당분간은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체계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SK그룹, 하나금융그룹, 포스코그룹 등 인천에 연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송도 포스코글로벌연수원 확보도 박남춘 시장이 포스코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을 들인 결과 거둔 성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시정 전반을 코로나19 대응 일정으로 전환하고,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치료시설 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오후에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확보된 포스코글로벌연수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추홀구 예방접종센터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무더운 여름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SK무의연수원과 중구 운서역·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천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치료병상 부족이 걱정됐는데, 포스코 측의 협조로 한시름 덜게 됐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포스코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치료병상이 대폭 확보된 만큼 생활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4차 대유행 조기 종료’를 위해 인천형 방역을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15: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